

日本 '86年度 에너지 需給實績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綜合報告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는 요즘 「'86년도의 에너지 수급·가격실적과 금후의 전망」이라는 題名으로 보고를 종합했다. 이에 따르면 日本의 에너지수급은 円高, 산업구조調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작년도에는 4년만에 전년 실적보다 감소되었지만, 금년도에는 內需擴大效果 등으로 다시 增加勢로 전환되고 「1~2% 增加가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以下, 그 概要를 소개한다.

원자력 세어는 10%

전체수요는 4년만의 反落

86년도는 構造調整元年이라고 해야할 획기적인 해였다.

G_s 이후의 円高가 본격화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판매, 가격정책의 변경이 도화선이 된 원유가격의 폭락, 이들 움직임과 밀접히 관련된 금리저하 등이 겹친 격동의 해였다.

특히, 「前川(마에가와)레포트」에서 제안하여 단행된 円高, 그에 수반하는 경제, 산업 구조의 조정은 철저했다.

가속적으로 진행된 円高는 수출감소, 수입증가를 초래하고, 內需나 늘지않아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에너지수급의 수준을 떨어뜨렸다.

그 결과, '86년도의 日本의 1차에너지 공급은 82년도 이래 4년만의 전년도실적 감소가 되었다.

円高와 거의 보조를 맞추어 진행된 원유가격의 저하는 국제시장가격의 急落과 円高효과에 의해

円베이스에서는 逆오일쇼크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것이었다. '86年 8월에는 원유도입 가격이 약 1만円/Kl로 1년전의 4.5만円/Kl에 비해 1/4이하의 수준까지 폭락했다.

그 후 OPEC의 감산체제가 성립되어 '86년말에는 1.7만円/Kl까지 상승했지만, 그래도 피크인 '82년도 평균 5.3만円/Kl에 비하면 1/3이하로 되어 있다.

석탄·천연가스 가격도 원유가격 정도는 아니지만 대폭 인하되고, 이 저가격은 에너지, 특히 석유수요 압박요인이 되었다. 단, 円高 불황에 의한 에너지수급인하요인을 상쇄하여 플러스로 전환시킬 정도의 가격인하효과는 없었다.

低金利는 주택·빌딩·비제조업·리스산업 등에서의 투자촉진, 자동차 등의 耐久資材 등에서의 지출증가를 초래하고, 民生用·交通用에너지 소비증대 요인이 되고, 제조업에서의 대폭적인 에너지 소비의 急落을 어느 정도 카바하고, 쏠에너지 소비의 감소를 소폭의 것에 머물게하기 위해 일정한 역할을 완수했다.

<1차 에너지 수급>

'86년도의 1차 에너지 공급은 석유 환산 4억 2천1백 72만Kl였지만, '85년도에 비해 2천 530만Kl, 0.6% 감소되었다.

주된 요인으로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 석탄공급이 철강불황에 의한 원료탄소비의 감소와 가격조건의 악화에 따른 일반탄소비의 침체로 457만톤, 4.2%감소된 점, 1차 공급환산으로

약 4 할을 차지하는 電力(賣電+자가발전)이 円高불황으로 보합상태에 머물렀던 점을 생각할 수 있다.

最終에너지 소비는 당 연구소의 분석으로는 '86년도에 들어'86년 4월~6월期間 이후, 前年 同期에 비해 감소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체의 5 할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전년 동기에 비해 數%의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출산업의 소비감소 내지 신장률 둔화가 현저하다.

반면, 민생부문·교통부문에서는 서비스化·소득효과·가격효과·저금리효과가 있어 전년동기에 비해 2-3%의 증가페이스를 유지했다.

〈전력수요〉

86년도의 요금개정과 시원한 여름으로 인한 電力수요(九個電力)는 전년도에 비해 0.4% 감소되어, '80년 이래 6년만의 실적감소가 되었다. 전체의 1/3을 차지하는 전등수요가 2.1% 신장되었지만, 3/4을 차지하는 동력수요가 5% 가까이 나 떨어진 것이 크게 효과가 있다.

자가발전은 KWH베이스에서 총전력수요의 약 1 할, 대소비 전력의 약 3 할을 차지하지만, 이것이 '86년도에는 10~15%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자가발전증가는 사업자의 전력수요를 1~1.5%, 同대소비 전력수요를 3~4.5%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된다.

86년도의 전력수급계획과 비교(送電端베이스, 九個社 合計)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86年度の 電力需給計劃과의 比較 (送電端베이스 9個社計)

(10 ⁶ kWh)	85年度 實績	(A)86年度 實績(推定)	(B)86年度 計劃	(A)/(B)
水 力	80,945	78,804	84,552	93.2
火 力	324,352	319,952	332,756	96.2
原 子 力	152,229	157,571	149,776	105.2
小 計	557,526	556,327	567,084	98.1
揚水用動力	△6,247	△7,554	△8,810	85.7
發受電計	551,279	548,773	558,274	98.3

水力이 계획을 대폭 하회한 것은 出水率이 '86년도 베이스에서 93.9로 나뉘기 때문이며, 원자력이 계획을 대폭 상회한 것은 가동률을 계획에서는 72.3%로 추정하고 있었던 데 반해, 실적은 75.7%로 높았기 때문이다.

금년도에는 1~2%증가
민생부문의 신장반영

〈에너지 수급〉

86년도의 1차 에너지 공급, 최종소비는 4년만의 전년도에 비해 감소의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지만, 87년도는 플러스로 전환되겠다.

円高불황은 계속되고, 실질경제성장률도 3%를 하회할 것이 예상되지만, 円高의 가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점, 내수확대책의 효과를 약간 기대할 수 있는 점, 엔고불황의 타격이 큰 산업부문의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점, 반대로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민생부문, 교통부문의 에너지 수요는 time log를 포함한 가격저하효과에 대하여

都市化, 서비스化, 레저化 등의 순풍을 받아 계속 年率 2~3%정도의 신장이 전망되며, 다시 에너지수급은 증가세로 전환되고, 1~2%의 증가가 예상된다.

〈電力〉

'87년도의 계획에서는 금년도의 전등, 전력수요計(九個電力)의 想定은 5.246억 4천만 KWH, 前年度에 비해 1.8% 증가이지만, 자가발전증가에 의한 감소요인은 약해지지만, 円高불황이 보다 심각해지는 대소비 산업용(특히 철강, 기계의 두 산업에서 대소비량의 약 4 할을 차지한다)의 것을 생각하면, 前年度에 비해 1~1.5% 증가 정도가 타당한 전망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